

1. 음운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리의 강약이나 고저 등은 분절되지 않으므로 음운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음운은 의미를 구별해 주는 최소의 단위이므로 최소 대립쌍을 통해 한 언어의 음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음운은 몇 개의 변이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로 들리는 소리가 다른 경우에도 하나의 음운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④ 음운은 실제적인 소리라기보다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기호라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①

<해설>

음운은 음소와 운소가 합해진 용어이다. 음소는 분절 음운으로서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소는 비분절 음운으로 소리의 길이, 강약, 고저 등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분절되지 않으므로 음운이라고 할 수 없다는 선택지 ①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2. 다음 문장 중 어법에 가장 맞는 것은?

- ① 금융 당국은 내년 금리가 올해보다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면서 대출 이자율이 2%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 하였다.
- ② 작성 내용의 정정 또는 신청인의 서명이 없는 서류는 무효입니다.
- ③ 12월 중에 한-중 정상회담이 다시 한 번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 ④ 그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단 하루도 연습을 쉬지 않았다.

<정답> ①

<해설>

- ② 필수적인 서술어 '있다'가 생략되어 있다. → '작성 내용의 정정이 있거나 또는 신청인의 서명이 없는 서류는 무효입니다.'로 수정해야 한다.
- ③ 이중 피동이 사용되어 어법에 어긋났다. → '~ 다시 한 번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로 수정해야 한다.
- ④ 필수적인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 '~ 그래서 그는 단 하루도 연습을 쉬지 않았다.'로 수정해야 한다.

3. 속담과 한자성어의 뜻이 가장 비슷한 것은?

- ①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 순망치한(唇亡齒寒)
- ②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 하로동선(夏爐冬扇)
- ③ 우물 안의 개구리 - 하충의빙(夏蟲疑氷)
- ④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 설중송백(雪中松柏)

<정답> ③

<해설>

- ① 순망치한(唇亡齒寒) : 서로 이해 관계가 밀접한 사이에 어느 한 쪽이 망하면 다른 한 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임. → 관련 속담 :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 ② 하로동선(夏爐冬扇) : 격식이나 계절에 맞지 아니하여 쓸모없음을 이르는 말임. → 관련 속담 : 여름의 화로와 겨울의 부채
- ③ 하충의빙(夏蟲疑氷) : 여름의 벌레는 얼음을 안 믿는다는 뜻으로 식견이 좁음을 뜻함.
- ④ 설중송백(雪中松柏) : 소나무와 잣나무는 눈 속에서도 그 색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절조가 굳은 사람을 비유함. → 관련 속담 : 송죽의 절개는 엄동설한에야 안다.

4. <보기>는 복수 표준어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따른 표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 ① 가는허리 / 잔허리
- ② 고깃간 / 정육간
- ③ 관계없다 / 상관없다
- ④ 기세부리다 / 기세피우다

<정답> ②

<해설> ‘고깃간, 푸줏간’은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파는 가게라는 의미로 복수 표준어이지만 ‘정육간’은 비표준어이다.

5. <보기>의 로마자 표기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기>

- ㄱ. 오죽헌 Ojukeon
- ㄴ. 김복남(인명) Kim Bok-nam
- ㄷ. 선릉 Sunneung

ㄹ. 합덕 Hapdeok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③

<해설>

ㄱ. 체언의 자음 축약은 발음의 결과를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오죽헌 (Ojukheon)

ㄴ. 인명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ㄷ. 선릉[설릉] - Seolleung

ㄹ.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6. <보기>의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公無渡河

公竟渡河

墮河而死

當奈公何

- ① 황조가와 더불어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서사시다.
② 한시와 함께 번역한 시가가 따로 전한다.
③ ‘물’의 상징적 의미를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④ 몇 번을 죽어도 충성의 마음이 변치 않음을 노래하고 있다.

<정답> ③

<해설> 보기의 작품은 <공무도하가>로서 물의 의미가 ‘사랑 → 이별 → 죽음’으로 변하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참고 자료>

● 공무도하가 - 백수광부의 아내

공무도하(公無渡河)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공경도하(公竟渡河) 임은 그에 물을 건너시네.

타하이사(墮河而死)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당내공하(當奈公何) 가신 임을 어이할꼬.

♣ 핵심 정리 ♣

- 갈래 - 4언 4구의 한역 시가. 개인적 서정시
● 성격 - 애상적, 체념적, 직서적
● 주제 - 임을 여윈 슬픔. 임의 죽음에 대한 애도

- 제재 - 물
- 구성 -
- 1행, 2행 - 임의 떠남 / 3행, 4행 - 임의 죽음
- 표현 - 직서법, 직정적(直情的)이고 절박한 표현
- 어조 : 여성적 화자의 애절한 울부짖음과 체념적
- 별칭 - 공후인(箜篌引)
- 의의
- ① ‘황조가’와 함께 우리 나라 최고의 서정 가요, ② 집단 가요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시기의 가요
- 연대 - 고조선 ● 출전 : <해동역사>

7. <보기>의 두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가)
 임 그린 상사몽이 ㉠실솔의 낮이 되어
 가을철 깊은 밤에 임의 방에 들었다가
 날 잊고 깊이 든 잠을 깨워 볼까 하노라.

(나)
 이 몸이 죽어져서 ㉡접동새 낮이 되어
 이화 핀 가지 속잎에 싸였다가
 밤중만 살아서 우리 임의 귀에 들리리라.

- ① ㉠은 귀뚜라미를 뜻한다.
- ② (가), (나) 모두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 ③ ㉡은 울음소리가 돌아갈 귀(歸), 촉나라 촉(蜀), ‘귀촉 귀촉’으로 들려 귀촉도라고도 한다.
- ④ (가), (나)의 작가는 모두 미상이다.

<정답> ④
 <해설> (가) 작품의 작가는 박효관이고, (나) 작품은 작자 미상의 작품이다. 따라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참고 자료>

님 글인 상사몽이 - 박효관

▣ 본문 학습 ▣

님 글인 相思夢(상사몽)이 蟋蟀(실솔)이 녀시되야
 秋夜長(추야장) 깊은 밤에 님의 房(방)에 드렀다가
 날 잊고 깊이 든 잠을 켜와 볼까 하노라.

꿈에서도 임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며 애타는 마음이 귀뚜라미의 낮이 되어,
 긴 가을밤 깊은 밤중에 임의 방에 들어가서,
 날 잊고 깊이 든 (임의) 잠을 깨워 볼까 하노라.

♣ 핵심 정리 ♣

- 지은이 - 박효관(朴孝寬, 1781-1880) 호는 운애(雲崖). 조선 철종·고종 때의 가객(歌客). 제자 안민영(安旼英)과 더불어 가집 <가곡원류(歌曲源流)>를 엮었다. 시조 15수가 전한다.
- 갈래 - 평시조
- 성격 - 연정가(戀情歌)
- 표현 - 추상적인 감정인 연정을 귀뚜라미라는 구체적 제재로 형상화함
- 제재 - 귀뚜라미
- 주제 - 입을 연모(戀慕)하는 애타는 심정
- 출전 - 가곡원류(歌曲源流)

8. 밑줄 친 단어의 형태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멀리서 보기와 달리 산이 가팔라서 여러 번 쉬었다.
- ② 예산이 100만 원 이상 모잘라서 구입을 포기해야 했다.
- ③ 영혼을 불살라서 이룬 깨달음이니 더욱 소중하다.
- ④ 말이며 행동이 모두 올발라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다.

<정답> ②

<해설>

용언의 ‘르’ 불규칙 활용 형태가 적합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이다.

- ① 형용사‘가파르다’의 어간 ‘가파르-’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서’가 결합하여 ‘르’ 불규칙 활용을 하였다. 따라서 ‘가팔라서’는 옳바르다.
- ③ 동사‘불사르다’의 어간 ‘불사르-’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서’가 결합하여 ‘르’ 불규칙 활용을 하여 ‘불살라서’로 표기하여야 한다.
- ④ 형용사‘올바르다’의 어간 ‘올바르-’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서’가 결합하여 ‘르’ 불규칙 활용을 하여 ‘올발라서’로 표기하여 적합한 형태이다.
- ② 동사의 기본형 ‘모자라다’의 어간‘모자라-’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서’가 결합하여 ‘모자라서’로 표기해야 한다. 이 때는 동음‘-아’만이 탈락된 규칙 활용을 하였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9. 한자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장(延長)’, ‘하산(下山)’은 ‘서술어+부사어’의 구조이다.
- ② ‘인간(人間)’, ‘한국인(韓國人)’의 ‘인’은 모두 어근이다.
- ③ ‘우정(友情)’, ‘대문(大門)’의 구성 성분은 비자립적 어근과 단어이다.
- ④ ‘시시각각(時時刻刻)’, ‘명명백백(明明白白)’은 고유어의 반복합성어 구성 방식과 다르다.

<정답> ②

<해설>

- ① 연장(延長) : 늘이다 + 길게 , 하산(下山) : 내려오다 + 산에서 -> 서술어 + 부사

- ③ 비자립적인 어근은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지만 어휘적 의미가 강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예 : 우정, 대문 -> 우, 대)
- ④ 고유어의 반복 합성어는 ‘반짝반짝’과 같이 ‘ABAB’형태라면 한자어의 반복 합성어는 ‘AABB’형태이다.
- ② 한자어의 형태소 분석에 관해서는 학자에 따라 의견이 나뉘는 분야입니다. 학교 문법에서는 각각의 한자어를 형태소로 처리하고 있다. 다만, 인(人)은 자립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근이 아닌 접사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 다음 중 띄어쓰기가 가장 옳은 것은?

- 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 ② 데칸 고원은 인도 중부와 남부에 위치한 고원이다.
- ③ 못 본 사이에 키가 전봇대 만큼 자랐구나!
- ④ 이번 행사에서는 쓸모 있는 주머니만들기를 하였다.

<정답> ①

<해설>

- ① 물속은 합성 명사이기 때문에 붙여 써야 한다.
- ② 고원(高原) 앞에 외래어가 붙더라도 붙여 써야 한다. → 데칸고원
- ③ ‘만큼’은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므로 앞 말과 붙여 써야 한다. → 전봇대만큼
- ④ ‘주머니만들기’는 합성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 띄어 써야 한다. → 주머니 만들기

11. 형태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 ① 떠내려갔다
- ② 따라 버렸다
- ③ 빌어먹었다
- ④ 여쭙어봤다

<정답> ①

<해설>

- ① 떠내려갔다 → 뜨 + 어 + 내리 + 어 + 가 + 았 + 다 (7개)
- ② 따라 버렸다 → 따르 + 아, 버리 + 었 + 다 (5개)
- ③ 빌어먹었다 → 빌 + 어 + 먹 + 었 + 다 (5개)
- ④ 여쭙어봤다 → 여쭙 + 어 + 보 + 았 + 다 (5개)

12.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이 아닌 것은?

- ① 묻다(問)
- ② 덥다(暑)
- ③ 낫다(愈)

④ 놀다(遊)

<정답> ④

<해설>

- ① 묻다 : 묻 + 어 → 물어 (ㄷ불규칙 활용 - 어간 불규칙)
- ② 답다 : 답 + 어서 → 더워서 (ㅂ불규칙 활용 - 어간 불규칙)
- ③ 낫다 : 나 + 아서 → 나아서 (ㅅ불규칙 활용 - 어간 불규칙)
- ④ 놀다 : 놀고, 노니, 놀아서 (규칙 활용)

13. <보기>의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首陽山(수양산) 바라보며 夷齊(이제)를 恨(한)하노라.
주려 주글진들 採薇(채미)도 하는 것가.
비록애 푸새엿 거신들 그 뉘 짜헤 낫드니.

- ① 시인은 사육신의 한 명이다.
- ② 중의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③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 ④ 단종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

<정답> ④

<해설>

- 작 자 : 성삼문(1418~1456)
- 성 격 : 지사적, 풍자적, 절의가, 연군가
- 제 재 : 백이, 숙제의 고사
- 주 제 : 굳은 절의와 지조
- 이해와 감상
: 세조가 단종을 폐위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자, 이에 항거한 작가가 자신의 위치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절의가의 대표작이다. 은나라의 충신 백이, 숙제와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의 굳은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14. <보기>의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우논 거시 벽구기가 프른 거시 버들습가.
이어라 이어라
漁어村촌 두어 집이 닛 속의 나락들락.
至지국慰총 至지국慰총 於어思스臥와
말가흔 기픈 소희 온갈 고기 쥘노는다.

년넝희 밥 싸 두고 반찬으란 장만 마라.
 달 드러라 달 드러라 靑靑蕝약笠립은 씨 잇노라, 綠靑蓑사衣의 가져오나.
 至지국欸총 至지국欸총 於어思스臥와
 無무心심흔 白백鷗구는 내 좇논가 제 좇논가.

- ①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 ③ 대구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④ 후렴구를 제외하면 전형적인 3장 6구의 시조 형식을 갖추고 있다.

<정답> ①

<해설> 임금에 대한 그리움이 함축적으로 표현된 부분은 없다.

- 작 자 : 윤선도
- 출 전 : <고산유고>
- 종 류 : 단가(短歌), 연시조
- 성 격 : 한정가(閑情歌)
- 제 재 : 어부(漁父)의 생활
- 주 제 : 강호의 한정(閑情). 철따라 펼쳐지는 자연의 경치와 어부(漁父) 생활의 흥취
- 이해와 감상

: 이 작품의 시적 관심은 강호의 생활에서 누리는 나날의 여유로움과 아름다움에 집중되어 있다. 이로 인해 고양된 기쁨과 충족감은 ‘흥(興)’이라는 말에 압축되어 나타난다. 이 작품에서 ‘흥’은 구체적인 생활의 정황과 화자의 행위, 그리고 자연의 묘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강렬한 도취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이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 현실 정치의 혼탁함으로부터 벗어나 자연의 아름다움과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작자의 현실관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특히, 심미적(審美的) 충족과 풍부한 흥취의 공간의 형상화가 참신한 느낌을 주는 것은 자연적 대상 자체가 지닌 아름다움과 자연 경관 및 사물에 대한 묘사가 관습적이지 않은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어부사시사’의 구성상 특징

‘어부사시사’는 자신이 은거하던 보길도의 춘하추동 각 계절의 경치를 노래하였다. 각 작품에는 계절마다 펼쳐지는 어촌의 아름다운 경치와 어부 생활의 흥취가 여음(餘音)과 더불어 잘 드러나 있다. 특히 초장과 중장 다음에 여음이 들어 있는데, 중장 다음에 나오는 여음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는 전편(全篇)이 일정하나, 초장 다음의 여음은 각 계절의 10수가 모두 다음과 같다.

- 1수 : 비 써라, 비 써라 ---→ 배를 띄워라
- 2수 : 달 드러라, 달 드러라 -→ 닻을 올려라
- 3수 : 돛 ㄷ라라, 돛 ㄷ라라 -→ 돛을 달아라
- 4수 : 이어라, 이어라 ----→ 노를 저어라
- 5수 : 이어라, 이어라 ----→ 노를 저어라
- 6수 : 돛 디여라, 돛 디여라 -→ 돛을 내려라
- 7수 : 비 세여라, 비 세여라 -→ 배를 세워라

8수 : 비 미여라, 비 미여라 → 배를 매어라
9수 : 달 디여라, 달 디여라 → 닳을 내려라
10수 : 비 브터라, 비 브터라 → 배를 대어라

15. <보기>와 가장 관련이 없는 고사성어는?

<보기> 썩 실은 천리마(千里馬)를 알아 볼 이 뉘 있으리 십년(十年) 역상(轡上)에 속절없이 다 늙도다 어디서 살진 쇠양마(馬)는 외용지용 하느니

- ① 髀肉之嘆
- ② 招搖過市
- ③ 不識泰山
- ④ 麥秀之嘆

<정답> ④ <해설> ① 비육지탄(髀肉之嘆) : 자신의 뜻을 펴보지 못하고 세월을 헛되이 보내는 것을 한탄함. ② 초요과시(招搖過市) : 허풍을 떨며 요란스럽게 사람의 이목을 끄는 것을 뜻함. ③ 불식태산(不識泰山) : '태산(泰山)을 모른다'는 뜻으로, 큰 인물의 참모습을 알아보지 못한 것을 의미함. ④ 맥수지탄(麥秀之嘆) : 보리가 무성하게 자란 것을 탄식한다는 뜻으로 나라가 무너져 예전과 같지 않음을 슬퍼하는 것,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탄식하는 의미임. <보기>는 김천택의 시조로서 초장에서 자신을 땔나무를 실은 천리마에 비유하여 능력은 뛰어난데 포교로 다녔던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종장에서 십년동안 마구간에 갇혀있듯이 하찮은 일에 매달려 청춘을 보냈다고 했다. 종장에서 재능도 없으면서 우줄거리는 양반들을 살피고 둔한 말이라 하여 자신의 불만을 표출했다. 따라서 정답은 ④에 해당한다.

16. 어휘의 뜻풀이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멸차다: 재산이나 자원 따위가 매우 많고 풍족하다
- ② 상고대 : 나무나 풀에 내려 눈처럼 된 서리
- ③ 안다미로: 다른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 ④ 툇아보다: 살살이 훑어가며 살피다

<정답> ③ <해설>

③ 안다미로 : 담은 것이 그릇에 넘치도로 많이

17. <보기>는 「훈민정음언해」의 한 부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나랏 말쑥미 中國에 달아 文字와로 서르 스몓디 아니 흘씨 이런 전초로 어린 百姓이 니르
고져 흙 배 이셔도 ㅁ츨내 제 ㅼ들 시러 퍼디 ㅁ흙 노미 하니라 內 이룰 爲호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믈여뵡字를 ㅁㅇ노니 사름 마다 ㅎ여 수비 니겨 날로 ㅼ뵡에 便安키 ㅎ고져 ㅎ
ㅅㅅ ㅁ니라

- ① <보기>는 한 문장이다.
- ② 밑줄 친 ‘시러’는 한자 ‘載’에 해당한다.
- ③ 밑줄 친 ‘내’는 세종대왕이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 ④ ‘ㅁ’와 ‘ㅁ.’는 발음이 같지만 단어들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했다.

<정답> ③

<해설>

- ① <보기>는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② 載(재 - 싣다)이므로 ‘싣게’라는 의미를 지니는 ‘시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내’는 ‘나 + ㅣ(주격 조사)’의 구성으로 ‘나’는 세종대왕에 해당한다.
- ④ ‘ㅁ.’는 ‘ㅁ’와 ‘ㅁ.’의 중간 발음에 해당한다.

18. <보기>의 밑줄 친 시어 가운데 내적 연관성이 가장 적은 것은?

<보기>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다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디치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백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아,
늑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 ① 차고 슬픈 것 ② 새까만 밤 ③ 물 먹은 별 ④ 늑

<정답> ②

<해설> 보기의 작품은 정지용의 '유리창'이다.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시 창작이 이루어졌다. '차고 슬픈 것, 물먹은 별, 닮은 죽은 아이의 분신과 관련된 시어이지만 '새까만 밤'은 시간적 배경을 알려주는 소재이므로 정답은 ②이다.

◎ 정지용 - 유리창

갈래 : 자유시, 서정시

율격 : 내재율

성격 : 서정적, 회화적

어조 : 감정을 절제한 지성적 어조

심상 : 선명하고 감각적인 심상

구성 :

1-3행 유리창에 어린 영상(기)

4-6행 창 밖의 밤의 영상(승)

7-8행 외롭고 황홀한 심상(전) ... 모순 형용

9-10행 죽은 아이에 대한 영상(결)

제재 : 유리창에 서린 입김

주제 : 죽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

출전 : <조선지광>89호(1930)

19. <보기>의 지문은 설명문의 일종이다. 두괄식 설명문으로 구성하고자 할 때 논리적 전개에 가장 부합하게 배열한 것은?

<보기>

㉠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언어 단위를 어절이라 한다. 띄어 쓴 문장 성분을 각각 어절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어절이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것은 문장 구성의 기본적인 성질이다.

㉡ 문장은 인간의 생각을 완결된 형태로 담을 수 있는 언어 단위이다. 문장은 일정한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지는데, 맥락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경우에는 문장 성분을 생략할 수도 있다.

㉢ 띄어 쓴 어절이 몇 개 모여서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남자가 아주 멋지다.'라는 문장에서 '그 남자가'와 '아주 멋지다'는 각각 두 어절로 이루어져서 주어와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다.

㉣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룬 것을 구(句)라고 한다. 절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구와 구별되지만,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장과 구별된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③

<해설>

두괄식이란 글의 주제가 글의 앞 부분에 위치한 것을 의미한다. 주제 문단은 다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포함할 수 있어야 하며 핵심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은 문장의 개념과 문장의 구성 성분에 대하여 언급함으로써 글 전체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은 문장 성분 중 가장 작은 개념인 어절을 언급하고 있으며, ㉢에서는 구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에서 구의 개념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절에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즉 점층적으로 문장 구성 단위를 확장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글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20. <보기>의 설명에 활용된 방식과 가장 가까운 것은?

<보기>

유학자들은 자신이 먼저 인격자가 될 것을 강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뿐 아니라 백성 또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을 원칙으로 삼는다. 주희도 자신이 명덕(明德)을 밝힌 후에는 백성들도 그들이 지닌 명덕을 밝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 백성을 가르쳐 그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민(新民)이다. 주희는 대학을 새로 편찬하면서 고본(古本) 대학의 친민(親民)을 신민(新民)으로 고쳤다. ‘친(親)’보다는 ‘신(新)’이 백성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취지를 더 잘 표현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반면 정약용은, 친민을 신민으로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정약용은 친민을 백성들이 효(孝), 제(弟), 자(慈)의 덕목을 실천 하도록 이끄는 것이라 해석한다. 즉 백성들로 하여금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하여 효도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여 자애의 덕행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 친민 이다. 백성들이 이전과 달리 효, 제, 자를 실천하게 되었 다는 점에서 새롭다는 뜻은 있지만 본래 글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① 시는 서정시, 서사시, 극시로 나뉜다.

② 소는 식욕의 즐거움조차 냉대할 수 있는 지상 최대의 권태자다.

③ 언어는 사고를 반영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예로 무지개 색깔을 가리키는 7가지 단어에 의지하여 무지개 색깔도 7가지라 판단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④ 곤충의 머리에는 겹눈과 홑눈, 더듬이 따위의 감각 기관과 입이 있고, 가슴에는 2쌍의 날개와 3쌍의 다리가 있으며, 배에는 끝에 생식기와 꼬리털이 있다.

<정답> ③

<해설> 보기의 지문에서는 유학자들의 백성들에 대한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즉 자신이 먼저 인격자가 된 후에는 백성 또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유학자의 대표적인 예로, 주희와 정약용을 들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①은 분류, ③은 예시, ④은 분석이다.